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은 서울국제도서전의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에 올해 신설된 부문이다. 새롭고 단단한 지식 생산으로 우리 출판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저자와 출판사를 국내외 독자들에게 널리 알릴 기회가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공개 모집이 끝난 이후 선정 심사에 참여하게 된 우리 위원들로서는 주최 측에서 너무 넓게 설정한 대상 도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차적인 논의 안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공모 과정에서 ‘학술서’와 ‘교양서’, ‘저서’와 ‘번역서’를 별도로 구분하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다양하고 이질적인 성격의 저작들을 나란히 놓고 함께 평가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하위 범주의 구분 없이 진행된 공모 절차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의 선정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심사는 학술서와 교양서, 저서와 번역서를 모두 망라해 이루어졌다.

우리가 고려한 평가 기준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저작이 다루는 주제에 관해 충실하고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가. 둘째, 새롭고 독창성 있는 학문적 관점이나 이론,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셋째, 사회적 논의 주제의 다양화에 이바지하며, 가능한 넓은 범위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넷째, 시간의 풍파를 견뎌내고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저작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 각각이 우선 30종의 저작을 선별하였고, 이 명단을 놓고 위원들이 모두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 후에 최종적으로 10종을 선정하였다. 이렇듯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뽑힌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은 철학, 역사학, 예술,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학술서에 더해 교양서 1종, 번역서 2종, 주해서 1종을 아우른다.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지성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있는지, 그 수준은 또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 주는 자랑스러운 책들이다. 모든 선정작의 저역자와 출판사 측에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신설 부문의 첫 번째 공모여서 그랬는지, 예상보다 지원작의 수가 적었던 점이다. 또 이번에는 공모 기준에 맞추어 심사에 번역서를 포함하고 교양서와 학술서의 구분 없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의 대상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이 독자들의 세상 보는 눈을 밝혀 주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 주며 우리 공동체의 당면 문제에 관한 성찰과 토론을 촉진하는 저작들에 대한 영예로운 인정의 심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 부문 심사위원 일동
이상길 집필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

출판사: 돌베개

작가: 강지나

심사평: 이리라(컬처룩 대표)

‘흙수저와 금수저’, ‘계층 사다리’, ‘부모 찬스’ 등 가난과 불평등에 관한 담론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요즘 이와 관련한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만큼 빈곤은 여전히 사회적 관심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목만으로도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강지나 작가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은 빈곤과 청(소)년의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룬다. 이 책의 힘은 가난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청년이 되어 가는 10년간을 기록한 데서 온다. 저자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쓴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을 계속 따라가며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난을 둘러싼 다층적인 문제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 빈곤을 주제로 한 데다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는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찰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적인 접근을 절제했기에 이러한 저술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 이들이 “자신이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듯이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은 이 책에 진정성을 한층 더 불어넣어 준다.

아울러 각 심층 인터뷰마다 달린, 연관된 핵심 주제에 대한 논의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 한다. 가족 문제, 진로에 대한 고민, 사회 진출과 성인으로서의 자립 등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저자는 날카로운 진단과 해석을 하고 있다. 책 말미에 있는, 가난과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노동 복지정책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제안도 눈여겨볼 만하다.

학술적인 논문 그대로가 아니라 그 연구 성과를 일반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를 풀어낸 점은 이 책의 미덕이다. 빈곤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시의적으로도 적절하고 의미 있다. 이 책이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항목이 고루 나열된 백과사전이나 도감은 지식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그림이나 사진을 모아 식물 대신 볼 수 있도록 엮은 책인 도감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유용한 도구다.

식물생태연구가이자 사진가인 윤주복의 『꽃 책』은 일종의 식물도감이자 백과사전으로 ‘자연의 지혜’를 들여다보게 한다. 꽃과 열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진과 설명에 담은 수준 높은 식물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장미모양꽃부리’를 찾아보면 복숭아꽃을 보여 준다. 복숭아꽃은 다섯 장의 연분홍색 꽃잎이 접시 모양으로 빙 둘러 나며 보통 꽃잎끼리 약간씩 겹쳐진다고 한다. 이런 모양의 꽃부리를 ‘장미모양꽃부리’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복숭아꽃 외에도 명자꽃, 양지꽃, 해당화, 매실나무 등 장미모양꽃부리에 해당하는 꽃들을 보여 주어, 같은 부류의 꽃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돕는다. 또한 번식에 바람을 이용하던 겉씨식물에서 곤충의 특성을 이용하는 속씨식물로의 변화는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데, 속씨식물의 진화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루어졌다. 개념으로만 알던 진화 과정을 이 책에 수록된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이 책의 큰 매력이다. 이러한 사진과 설명은 꽃식물의 진화 원리를 이해하고 식물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책 끝부분의 용어 해설을 비롯해, 책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를 사용하고 한자어나 영문 용어는 따로 표기해 참고하도록 한 점도 이 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30년 동안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책에서 저자의 집념과 성실함이 돋보인다. 특히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꽃과 열매의 모양을 단면과 세부 촬영으로 세세하게 담고 있어, 꽃과 열매에 관한 충실한 식물도감이라 평할 수 있다. 이러한 도감을 만드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간다. 독자가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미지와 설명을 배치하고 편집한 점도 눈에 띈다. 저자가 말했듯이 “이 책과 함께 돋보기 하나만 지니고 나서면 산과 들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과 열매의 모습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비와 쇠고기: 성균관과 반촌의 조선사』

출판사: 푸른역사

작가: 강명관

심사평: 김호(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노비와 쇠고기: 성균관과 반촌의 조선사』는 한마디로 소고기의 ‘문화사’이자 소고기 판매의 이익을 둘러싼 공모와 갈등의 ‘사회사’이다. 역사학자는 다양한 관점과 현실 인식을 통해 과거와 대화한다. E. H. 카의 유명한 말대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 그만큼 역사가의 ‘현재’의 문제의식이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 큰 바탕이 된다. 저자 강명관의 역사의식과 이를 통한 실천의지는 분명하다.

그는 줄곧 조선시대 권력 및 이데올로기의 작동과 지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해 왔다. 특히 그의 모든 연구의 중심에는 미시적 소재가 놓여 있다. 안경이나 망원경, 그리고 자명종 등 서양에서 도입한 서양의 ‘물건’을 중심으로 한 서양문물 수용의 미시사라든가, 열녀를 통한 미시적 접근의 조선 여성사 재서술, 가짜 남편 만들기 해프닝을 통한 16세기 조선 사족의 일상사 등 강명관의 연구들은 미시적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조선의 거대한 사회 구조나 정치 갈등, 나아가 문화 구조를 탐구하는 데 소홀하지 않은 미덕이 있다. 미시사와 거시사를 모두 아우르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기왕의 한국사 연구에 커다란 자극이자 새로운 방법론 모색의 좋은 사례였다. 이번 저작 역시 그동안의 연구방법론이 그러하듯이 미시적이면서 동시에 거시적이다. 강명관의 공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대작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노비’와 ‘쇠고기’가 미시 접근의 대상이다. 시작은 음식 이야기인 듯하지만 결국 조선의 정치사이자 사회사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다. 조선인은 오래도록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오직 쇠고기를 소비한 탓에 다산 정약용은 농사에 온통 부러먹고는 다시 고기를 취하니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조선의 풍속을 비판했다. 바로 이러한 조선의 쇠고기 사랑 이면에, 쇠고기를 둘러싼 고기 시장, 세금과 이익, 성균관이라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에 소속된 노비들과 이들을 수탈하는 권력기구를 배치한다. 저자는 쇠고기 판매의 이익금을 노린 형조와 한성부 그리고 성균관 등의 수탈 구조를 비판하고, 조선 지배층의 허위를 고발한다. 물론 피지배층이 항상 수탈의 대상만은 아니어서 성균관 등 지배제도와 일종의 경제공동체를 꾸린 것으로 보았다. 책 속의 많은 인용문은 조선의 풍속과 사법과 행정 시스템 특히 고기를 둘러싼 음식 문화에 관한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일반인들은 물론 연구자들마저 시간을 들여 음미해 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비극의 탄생: 시민을 위한 예술을 말하다』 (세트)

출판사: 평사리

작가: 프리드리히 니체(저)/ 이남석(역)

심사평: 조효원(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이 책에 관해 말하기 위해서는 시라토리 하루히코의 작업을 먼저 언급해야 한다.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의 ‘편취(騙取) 저작’ 『니체의 말』에 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저작권 시비에서 자유로운 대가의 저작을 ‘합법적으로’ 채굴하여 먹기 좋게 가공한 물건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수법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니체의 말』과 그 동류의 저작들은 제아무리 위대하고 심오한 사상이라 해도 무도한 자본주의 정신 앞에서는 한낱 무용지물, 아니 손쉬운 먹잇감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무릇 대중의 습성이란 언제나 즉석에서 결과를 확인하려는 것이고, 이를 간파한 장사치들은 기회를 틈타서 니체건 소크라테스건 조금도 개의치 않은 채 마구 잘라 내고 대충 때려 넣어 얼핏 꽤 그럴싸한 싸구려 ‘밀키트’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 그들은 크게 성공한다.

이남석이 번역·주해한 『비극의 탄생: 시민을 위한 예술을 말하다』는 이 샅된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귀중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미 막스 베버와 칼 만하임의 저작을 번역함으로써 탄탄한 학문적 역량을 증명한 바 있으며, 또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번역·주해하는 작업을 통해 고전 안내자로서도 입지를 굳힌 이남석의 니체 번역은 한국 인문학 독서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업적이다. 니체 사상의 전모를 알고 싶어 하는 일반 독자를 위해서뿐 아니라, 서양 인문학의 정수를 맛보고 싶어 하는 전문 독자에게도 친절할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니체를 절대 읽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십 대 초반의 청년이 대략 사반세기 넘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니체를 읽는다는 것은 ‘중력’을 벗어나 탈주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작지만 커져 나갈 탈주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극의 탄생』을 나만의 방식으로 읽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근사한 고백이다. 그리고 그의 ‘개종’ 내지 ‘회심’은 이렇듯 한국의 인문학계와 출판 문화계에 뜻밖의 큰 선물을 안겨 주는 결과를 낳았다. 부디 이 책의 독자 수가 『니체의 말』을 읽은 독자 수를 크게 상회하기를 기원한다. 비범한 전향인 이남석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세상에 내놓은 결과물인 이 책은 ‘한국의 가장 지혜로운 책’으로 꼽히기에 조금도 손색없는 책이다.

『성서의 역사』

출판사: 비아토르

작가: 존 바턴(저)/ 박규태(역)

심사평: 김두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아라비안 나이트」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흔히 ‘액자식 구조’라고도 불리는 이런 형식은, 남들은 모르는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쾌감을 주는 듯하다. 아울러 서로 다른 세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얹힌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역사와 현실의 복잡함과 신비를 느끼도록 해 준다.

『성서의 역사』는 그런 종류의 책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서라는 책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탄생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실은 성서를 집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렇게 탄생한 성서의 텍스트를 읽은 후대의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성서가 탄생하는 데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알게 된다. 물론 이런 과정 가운데는 의도적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목적 없이도 당대의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작용한 요인들이 후대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히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성서는 텍스트의 등장인물과 집필자와 독자가 상호작용하고 과거와 현재가 연관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임을 이 책은 보여 준다.

저자는 이런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 준다. 저자는 성공회 사제이지만, 종교적 색채는 배제한 채 성서라는 책 자체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런 서술이 가능했던 것은 평생토록 성서를 연구한 공력 때문이 아닐까 싶고, 이런 차분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서가 진정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귀기울이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900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며, 번역이 잘된 덕에 애초에 우리말로 쓴 책처럼 매끄럽게 읽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나아가 저자는 이런 복잡함을 풀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성서와 관련한 궁극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결론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기독교에서 성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서와 신앙은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읽다 보면,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그의 의견을 경청하게 되고,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픈 마음이 든다.

종교가 사랑과 평화보다는 증오와 전쟁의 이름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에, 종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제자리를 찾는 길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 책을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으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서』 (세트)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작가: 위징 외(저)/ 권용호 외(역)

심사평: 김호(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무엇보다 먼저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을 선정하는데 번역서인 『수서』를 뽑은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사실, 이 공모의 선정작으로 국내 저작이 아닌 번역서를 뽑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번역서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 내 좋은 번역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다.

모든 번역이 그러하겠지만 한문 번역의 수고로움을 잘 아는 입장에서 방대한 『수서』를 완역해 낸 역자의 공로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수서』는 중국의 역사서이지만 한국의 역사가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역사 연구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료이다. 가령 고구려를 쳐들어온 수양제와 살수대첩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서』에는 수양제의 폭정을 비롯한 고구려와의 전쟁 등 무수히 많은 관련 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한마디로 한국 고대사는 물론 중국사 연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역사서라 할 수 있다.

고대 이래 현대까지의 중국사를 『사기(史記)』에서 다루었다면 이어진 혼란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기까지의 역사는 『수서』에 모두 기록되었다. 제왕들의 역사인 「제기(帝紀)」 5권, 「형법지」, 「식화지」, 「지리지」 등 30권의 「지(志)」, 『수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열전」 50권으로 모두 85권의 방대한 역사 서술이다. 수나라 역사의 종합판으로 특히 「형법지」와 「경적지」 그리고 「열전」 등의 사료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 수나라는 30여 년만 존속하고 멸망했기에 흥망과 치란의 교훈을 주는 시대로 평가되어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매서운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당나라의 역사가들은 이전 왕조인 수나라를 날카롭게 포폄[선정(善政)에 대한 칭송과 악정(惡政)에 대한 비판]하는가 하면 역사 속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열전」에 빼곡하게 수록해 두었는데, 「열전」은 『수서』 가운데 백미의 문장이다. 가령 수나라의 장군으로 을지문덕에게 속아 대패했던 우문술에 대한 직서(直敍)를 보도록 하자.

“을지문덕은 우문술 군영의 군사들 얼굴에 배가 고프는 기색이 역력해지자 우문술의 군사들을 지치게 만들려고 했다. 이에 싸울 때마다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고 달아났다. (중략) 을지문덕이 사자를 보내 거짓으로 투항하며 우문술에게 청하며 말했다. ‘그대들이 돌아간다면, 고원(高元) 패하께서 그대들의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재배할 것이다.’ 우문술의 군사들이 강을 반쯤 건넌을 때 적들이 후군을 공격했다. 이에 손쓸 틈도 없이 크게 패하고 말았다. 구군(九軍)은 대패하고 낮과 밤으로 450리를 걸어 압록강에 이르렀다. 처음에 요하(遼河)를 건넌 구군은 30만 5,000명이었는데 요동성(遼東城)으로 돌아온 군사는 2,700명 정도였다. 크게 화가 난 양제는 우문술을 평민으로 강등시켰다.”

외국을 침략한 중국의 잘못된 역사를 통렬하게 반성한 내용이다. 중국의 고전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히

중국의 고전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오랜 전통과 지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훌륭한 중국의 고전들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 보이는 번역서를 선택하게 되었다. 독자들의 혜량을 기대한다.

심사평: 조효원(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1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이 두꺼운 책이 세상에 나온 시점(2023년 11월 30일)은 참으로 공교롭다. 하필이면 하마스의 로켓포가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파괴한 직후에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교로움은 저자의 다음 두 진술을 읽고 나면 더욱 커진다. ‘여는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팔레스타인은 전 세계에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이미지와 실제의 괴리가 가장 큰 나라였다.” “팔레스타인도 그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일 뿐이다.” 2024년 3월 심사평을 작성하는 현재, 이 문장들을 읽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지금 그곳은 말 그대로 ‘아수라의 지옥’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되고 하마스의 응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그곳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터로 변모했다. 전쟁 발발 이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기근으로 인해 아사했을 뿐 아니라, 술한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잠재적 학살 및 횡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지금 팔레스타인은 결코 여느 곳과 같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공교로운 느낌은 독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고 장려한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최적기에 출간되었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책은 너무 늦게 세상에 나왔다. 우리는 훨씬 오래전부터 팔레스타인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공부는 호사가의 관심사 정도로 그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100년 분쟁의 기저에는 ‘정당한 성서 해석이란 무엇인가?’라는 중차대한 질문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은 비단 유대 민족과 팔레스타인 거주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에게도 근본적인 함의를 갖는 것이며, 압도적인 수의 기독교인을 거느린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비극의 뿌리는 곧 우리의 실존적 상황과 직결된 문제다. 더욱이 이 질문 뒤에는, 다시, ‘정치적 결정과 합의의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는 한층 절박한 현실-정치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의 제2부를 집중적으로 독서하면 좋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결코 유대 공동체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다수의 유대인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했던 계획이었고, 오직 극소수의 유대인과 열강의 합의로 시작된 것이었다. 분쟁의 책임은 바로 이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고통과 증오의 역사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역사에 실제로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학계에 소속되지 않은 독학자가 일군 성과로는 참으로 팔목할 만한 이 책은 그 역사를 공부하려는 모든 독자에게 긴요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미술들: 개항에서 해방까지』

출판사: 워크룸 프레스

작가: 김영나

심사평: 이상길(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김영나 작가의 『한국의 미술들: 개항에서 해방까지』는 제목 그대로, 조선이 닫혀 있던 문호를 열고 서구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19세기 후반부터 일제의 식민 통치가 막을 내리는 1945년까지 한국 사회의 ‘미술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는지를 기술한 책이다. ‘미술들’이라는 다소 생경한 어법에 주목하자. 우리말로 어색한 이 복수형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회화와 조각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근대미술사 서술 경향에서 벗어나 공예, 건축, 사진, 삽화, 전시, 수집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울러 논하는 책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미술들’로 역사 쓰기의 대상을 확장하면서, 저자는 우리 근대미술사의 기점 또한 자연스럽게 올려 잡는다. 즉 이른바 ‘순수미술’상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서양 문물의 수용과 더불어 건축, 사진, 인쇄물 등에 변화가 나타나는 1880년대가 근대의 서막으로 제시된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근대미술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작품 분석의 양쪽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지낸 대표적인 미술사학자로서 저자의 공력이 빛나는 지점이다. 제도 변천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시선은 예리하고,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평은 생생하다. 그는 근대미술사학의 여러 연구 성과를 요령 있게 정리해 가며, 그 합리적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미술 개념의 출현과 의미 변화, 전통회화에서 근대회화로 이행, 전시와 관객과 비평의 제도화, 미술 시장의 형성 및 교육기관의 등장, 미술 단체들의 활동과 새로운 화단의 성립, 재조 일본 화가들이나 서양으로 간 조선 화가들, 식민지 근대성과 모더니즘 미술, (전통 추구하고 향토색 논쟁처럼) ‘민족주의와 식민주의의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진 한국 미술의 정체성 모색 같은 중요한 주제들이 명료한 문장 위에서 세심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다루어진다.

저자가 근대미술사 연구자로서 “격동하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서술한 개설서가 있었으면 했던 아쉬움”을 스스로 풀기 위해 애써 준 덕분에, 독자들은 초창기 한국 미술에 대한 풍부하고도 체계적인 이해를 도와 줄 멋진 책 선물을 받은 셈이 되었다. 선명한 도판으로 실려 있는 200여 장의 그림과 사진 자료 덕분에 근대미술의 대표작들을 지면으로 감상하는 즐거움도 책 읽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그야말로 미술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근대사의 굴곡과 성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는 매력적인 개설서가 아닐 수 없다.

심사평: 김두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작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쓴 글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육필(肉筆)’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종종 원고지에 손으로 꺾꺾 눌러썼다는 수사를 동반하고서 말이다. 그런데 나는 어릴 적 영화에서 타자기를 두드리는 외국 작가들이 나올 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글쓰기를 마친 뒤 타자기에서 원고를 꺼내어서 책상에 내려놓고는 위스키 한 잔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 작가들은 원고지에다가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일까?”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김태호의 책은 이런 내 오랜 궁금증에 대해 답을 준다. 타자기가 처음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19세기 후반 미국이었고, 이후 서양에서는 타자기가 회사 업무는 물론이고 작가들의 집필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타자기가 널리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한자라는 장벽을 넘어서기가 어려웠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한글 전용 정책을 실시한 결과 엄청난 장벽이 제거되었음에도 타자기 보급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한글의 장점 그 자체였다. 스물여덟 개 자모를 모아 온갖 종류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글의 엄청난 자랑이다. 그러나 수만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글자를 맵시 있게 디자인하는 것은 정말 재앙에 가까운 일이다. 여기에다가 받침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한글 기계화는 알파벳 기계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20세기 우리나라 타자기의 역사는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도와 실패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선구자가 두벌식, 세벌식, 네벌식 등 여러 가지 자판체계를 창안했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제품의 다양성이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여주지만, 타자기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타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자판을 연습해야 하는지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비자들이 어떤 자판을 사용하는지 모르면 생산자 역시 어떤 자판 제품을 만들지 정하기 어렵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고 부른다.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표준 자판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자판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김태호는 타자기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 과정을 폭넓게 살펴본다. 결국 컴퓨터의 등장이라는 기술 혁신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 기계식 타자기라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의 문제가 뜬금없이 권위주의 정권과 얽히고 장애인 복지 문제와 마주치다가 하면 한글 디자인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책이다.

아쉬운 점은 서술이 다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타자기의 역사에서 공병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책이 공병우에게 할애한 지면은 지나치게 많다. 아울러 전체 논의가 현재의 표준이 등장해 가는 과정의 서술보다는 왜 공병우의 세벌식 자판이 표준이 되지 못했느냐는 관점에서 서술이 되다 보니, 다 읽고 났을 때 큰 흐름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내용만 보자면 이 책의 제목은 “공병우를 통해 본 한국 현대사” 정도가 되어야 더 적절했을 듯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병우 중심으로 되어 있고, 타자기와 관련한 중요한 많은 주제는 오히려 간략하게 다루어지거나 생략되어 있다. 왕성한 저작 활동을 하는 저자가 다음 작품에서는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출판사: 반비

작가: 서보경

심사평: 이상길(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의 평범한 독자가 HIV/AIDS에 관한 책을 자기 문제처럼 공감하며 읽을 수 있을까?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의 놀라운 점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데 있다. 여기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 책이 바이러스와 감염에 관한 우리의 오랜 ‘상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 기쁨을 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소재는 HIV이지만, 이 책의 논의는 인간이 다양한 바이러스나 미생물과 맺는 관계 일반으로 쉽게 확장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호되게 겪은 우리에게 사뭇 각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이 책의 장점은 생생한 인권 현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류학자이자 인권 활동가이기도 한 저자 서보경은 한국 사회에서 HIV 감염인과 AIDS 환자가 그동안 어떤 억압과 차별에 시달려 왔는지, 그 역사와 현실을 구체적인 문화기술지의 언어로 풀어낸다. 저자가 조곤조곤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HIV/AIDS 문제가 나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나의 문제,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결국 사소한 차이나 불운으로 인해, 혹은 다수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원치 않은 낙인과 핍박과 고난의 구렁텅이로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운 좋게 ‘뒷줄’에 서서 멀쩡히 지내 온 나 같은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앞줄’에서 먼저 바이러스에 휘말린 사람들의 경험과 고통에 얼마나 많은 것을 빚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 준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주장은 아마도 감염과 질병 경험을 “생물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의과학과 생물학, 인류학, 철학, 퀴어이론 등의 최신 지식을 가로지르면서 저자는 감염을 가해와 피해, 침입과 방어의 단순한 구도 아래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시종일관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감염은 “서로 다른 생명 형식이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변형하는 과정”이자, “인간과 바이러스 모두의 속성이자 양자가 함께 겪는 일”이다. 저자는 감염을 ‘시키다’-‘당하다’의 대립적 고정관념에서 해방하고,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의 뒤얽힘을 적절히 포착하기 위해 ‘감염하다’, 또는 ‘휘말리다’라는 중동태의 어법을 깊이 있게 성찰한다. 이는 단순한 용어 전환의 문제만은 아니다. 감염에 대한 낡고 그릇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과 ‘감염시킨’ 사람/바이러스를 낙인찍고 배제하는 사회적 폭력을 거부하는 일은 결코 별개의 문제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모든 생명체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연결과 관계성에 응답해야 한다는 정치적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억압 구조와 생명 정치의 과정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인상적인 것은 그 와중에도 저자가 사람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내내 거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책 곳곳에서 우리는 감염자, 혹은 그에게 휘말린 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주한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돌봄과 연대를 실천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자의 목소리 또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신념을 실어나른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하며, 반드시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러니 저자가 억압의 냉엄한 현실과 복잡한 구조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그때마다 ‘~할 수 있다’로 끝나는 문장들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일말의 객관적인 가능성에 대한 서술인 동시에, 저자 스스로의 다짐이며 나아가 독자를 향한 동참의 요청이기도 하다. 미래는 바뀔 수 있고, 바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고통을 다룬 이 책 한편에서, 여전히 희망의 기운이 넘치는 것은 그 때문이다.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들이 겪어온 차별과 배제에 대한 예리한 고발로, 관련 인권운동에 대한 성실한 기록으로, 그리고 감염 현상에 관한 탁월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 연구로 이 책이 거둔 성취에 찬사를 보낸다.
